『삼천리』에 나타난 인물 재현의 정치학 - '주의자'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손 유 경*

≪目　次≫

1. 들어가는 글 - '삼천리'의 인물
2. 성애화의 양상들 - 비합법 운동가들을 합법적으로 상상하는 법
1) 유혹하고 연애하고 배반하는 주의자들
2) 수감자/배우자의 성욕과 옥중 로맨스
3. 주의자에 대한 기억 나누어 갖기
1) '사라진 거물'에 대한 회고와 소문
2) '돌아온 영웅', 가인(佳人)과 호걸(豪傑)들
4. 나가며

1. 들어가는 글 - '삼천리'의 인물

일제 식민지기를 관류한 최장수 종합 잡지 『삼천리』(1929~1941)는 그 자료적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전모(全貌)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료(史料)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는 말은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말과도 통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친일파 김동환의 친일 잡지' 내지는 '진정성이 결여된 단순 대중지'라는, 『삼천리』에 대한 오랜 편견이 조금씩 불식되고 있음은 새삼 주목할 만하다.[1)]

이 글은 친일 잡지 또는 대중지라는 통념이 『삼천리』의 잠재된 사료적 가치를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쓰였다. 이런 관점에서 『삼천리』 편집의 일관된 방향이랄까 한결같은 지향점을 추출해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삼천리』가 그야말로 '삼천리' 방방곡곡의 명사(名士)

*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의교수

1) 남윤수, 전영표, 고덕환, 류재엽, 부길만, 2001 「잡지, 출판인으로서의 파인 김동환」(1)~(5) 『출판잡지연구』 9 ; 장영은, 2008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 : 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 ; 천정환, 2008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36 ; 손유경, 2008 「나혜석의 구미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36 ; 유석환, 2009 「1930년대 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 『사이』 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소식을 매우 성실하게 싣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 각계의 유명 인사들은 명사(名士), 거두(巨頭), 인재(人才), 지도자, 유세력자(有勢力者), 또는 장안 호걸, 거물, 풍류객, 가인 등으로 불리며 『삼천리』 지상에 거듭 출현한다. 『삼천리』는 일제 강점기 사상계, 문화계, 재계를 아우르는, 가장 방대하면서도 입체적인 인물 재현 체계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물 데이터의 보고(寶庫)라 불러도 손색없을 『삼천리』의 이 같은 면모는 주간 김동환의 인맥이 그만큼 넓고도 탄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창(窓)의 역할을 담당한다. 『삼천리』는 인물 소개나 인재 순례 같은 일견 단조로워 보이는 기사 제목 아래 조선 반도의 숨은 운동가나 좌우를 막론한 유수의 지도자상을 반복적으로 지면에 노출시킨다. 앵글을 달리해가며 같은 인물을 여러 번 찍는 카메라와도 같이 『삼천리』의 명사 관련 보도는 집요하고도 입체적인 데가 있다.[2)]

당대 유명 인사들에 관한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말해주듯 『삼천리』는 현실을 탐구해보려는 의욕이 왕성한 잡지였다. 이를테면, 창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삼천리』는 "우리들은 제가 살고 잇는 이 조선의 현실을 잘 아는 듯 하면서도 彼此에 모르고 지나는 일이 만[많]"기에 "이제부터 每月 彼此 함께 우리의 모든 運動의 算出基礎가 되는 이 현실을 연구하여 보"[3)]자고 제안한다. 「여러분 아심니까, 「朝鮮의 現實」연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러한 의도 하에 실린 것이다.[4)] 이 기사에는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 던진" 국고금 규모에서부터 전(全)조선 경찰서 및 경찰 수(數), 그리고 감옥과 수인 수(數)에 이르기까지의 세부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 전체를 재계, 언론계, 학술계, 사상계, 문화계 등의 여러 '계'로 나누어 놓고 각 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전망을 모색해보려는 김동환의 노력은 각별한 것이었다. 각계각층의 인물 재현의 서사는 『삼천리』(혹은 김동환)의 이러한 탐구 정신의 소산이라 할 만하다.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유명인사의 인물 재현 양상과 관련해 『삼천리』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 중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삼천리』에서 그려지는 방식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삼천리』의 '주의자' 표상이 중요한 것은, 첫째 그 시기적 함의 때문이다. 창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동환의 표현대로 "정치 운동의 '정'자도 쓰기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하는데 정치 운동이 그토록 탄압되는 시기에 '주의자'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이들의 형상을 그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비합법 영역으로 숨어든 1930년대에 종합잡지 지면을 통해 '주의자'의 실체를 노출시키고 그들의 행적을 좇는 작업에는 다양한 재현 '전략'이 요구되었음이 틀림없다. 지하운동과 수감 상태가 사회주의 운동의 정통성

2) 상세한 기사 목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3) 8호(1930. 9), 34면.

4) 이 기사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은 '테러리스트' 명단이다. 여기에는 유명한 조선의 무정부주의자 박열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인물들과 달리 박열의 경우에는 주요 사실이 모두 삭제돼 있다. 이후 박열에 관해서는 옥중 로맨스 기사와, 전향 기사(1938년 5월(10권 5호))가 몇 번 더 실린다.

을 보증하게 된 상황[5]에서 '주의자'들의 옥중 경험을 재현하고 이들의 전성기를 회상하는 『삼천리』의 의도는 무엇인가. 혹은, '비가시성'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자의 아우라가 발하게 된 상황[6]에서 수감자의 성과 사랑을 묘사하고 출옥한 사회주의자의 근황을 캐내는 『삼천리』의 지향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본고가 설정한 주요 과제이다.

최근 들어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의 표상 문제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1920년대 『매일신보』의 反사회주의 담론이 사회주의(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박헌호의 논의나[7] 1920년대 중반 신문만평 분석을 토대로 사회주의에 관한 문화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밝힌 이승희의 논문은,[8] 사회주의 붐이 일었던 1920년대 중반기까지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독자 대중에게 어떻게 표상되고 상상되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반사회주의적 권력에 의해 '비가시적' 존재가 된 사회주의자들이 체포, 투옥, 전향이라는 계기를 통해 '가시성'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밝힌 이혜령의 글과[9]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전향 사회주의자 형상을 분석한 공임순의 글은,[10] 1930년대 감옥체험과 전향이라는 계기가 사회주의자의 형상을 재현하는 소설에 미친 심층적 영향력을 밝히는 중요한 논문들이다. 요약하자면, 사회주의적 실천이 약진했던 1920년대에는 反사회주의적 선전 담론과 사회주의자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교차할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의 투옥과 망명에 대한 소식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1930년대에는 별다른 反사회주의적 선전 없이도 사회주의(자)의 미래는 충분히 어두운 것으로 인식됐을 것이고, 따라서 '전향'이라는 계기 없이 이들을 재현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삼천리』의 중요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주의자 탄압이 일상화된 1930년대의 잡지 『삼천리』는, 1920년대 친일 매체들처럼 노골적인 反사회주의 선전 담론을 펼친 것도 아니고 유수의 저항적 일간지들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낙관적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1930년대 전향소설의 히로인인 전향 사회주의자들만을 지상으로 불러내지도 않았다. 『삼천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이나 알 수 없는 공포심을 환기하던 1920년대 여러 매체들보다

---

5)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이 비합법화하자 '지하운동'과 '감옥'이 운동의 정통성을 보증하게 된다. 망명 혹은 도피하지 않아도 되거나 투옥되지 않은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되거나 자신을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별다른 위협이나 타격을 주지 않는 아류 내지 이류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영은, 2008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64집, 192면.

6) 이혜령, 2008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 :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64집, 94면.

7) 박헌호, 2005 「192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의 反사회주의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29.

8) 이승희, 2008 「1920년대 신문만평의 사회주의 정치와 문화적 효과」 『상허학보』 22.

9) 이혜령, 앞의 논문.

10) 공임순, 2006 「식민지 시대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형상 연구 : 김남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7.

훨씬 현실 인식에 투철한 잡지였고, 전향한 주의자들만을 형상화한 1930년대 여러 소설에 비해 훨씬 다채로운 주의자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합법 매체였다.

『삼천리』의 주의자 표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삼천리』가 사회주의(자)를 기록하고 재현하는 방식에서 합법 영역과 비합법 영역이 교란되고 동요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천리』는 지하 운동(수감/망명)의 경험을 통속적인 문법(성욕/연애)에 따라 표현하거나, 망명 및 투옥 중인 비합법 주의자들의 현재를 취재하기보다는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합법과 비합법, 신념과 사랑,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을 교묘히 흐려놓는다. 『삼천리』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서로 유혹하고 연애하며 때론 배신하는 통속소설 속 주인공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식 공산당원'으로 소개된다. 이들은 또한 감옥에 가서도 수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이자, 일본인 기자나 판사를 주눅 들게 할 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거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은 『삼천리』의 동반자적 색깔이다. 『삼천리』는 카프 제 1차 검거 사건 이후 카프 문인들의 권토중래를 기대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고[11] 이기영의 장편 프로 소설 집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피력할 뿐 아니라[12] 제 2차 검거 사건 이후 카프 문인들의 부인들이 얼마나 곤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집중 조명하기도 했으며[13] '기밀실'을 통해 해소 이후 카프 문인들(박영희, 이기영, 백철, 이갑기, 송영, 김유영, 윤기정, 최정희)의 근황을 소상히 전하기도 한다.[14]

본고는 『삼천리』의 주의자 표상을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초기 『삼천리』에서 '주의자'는 '민족주의자'의 카운터 파트로 등장한다. '민족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라는 질문과 답변이 앙케트 기사의 단골 메뉴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1930년 5월호의 「제씨의 聲明」에서 이승훈, 최린, 이광수, 안재홍, 송진우, 김경재, 배성룡, 이돈화, 임원근, 송봉우, 나혜석 등 남녀 명사들에게 기자는 "선생은 민족, 사회주의자임니가?"를 포함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나누어 보는 시선은 1932년경까지 유지된다. 「誌上 삼천리전체회의, 제일부문=민족문제, 현하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듬해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마침내 "정치운동의 '정'자도 못 쓰게 된" 상황이 도래한다. 누군가의 '주의'를 공개적으로 묻고 답하는 일이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1931년 말에는 합법 단체인 카프마저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검거 사건을 치른 바 있다. 1932년 말 김동환은 아래

11) "懷月, 八峰, 箕永, 宋影, 林和, 安漠, 尹基鼎 諸氏. 원래 체질이 약한데다가 이번 캅프사건으로 유치장과 감옥을 도라다니며 오랫동안 형을 밧기에 몸이 대단히 지처서 아직도 와석하는 분이 만타고. 그러나 **捲土重來할 의기는 이 동안의 시련에서 어더슬 것이니 하편으론 깁부기도 하다.**" 「문단잡화」 3권 12호(1931. 12), 98면.

12) 「이기영 씨의 장편」, 5권 10호(1933. 10), 57면.

13) 7권 1호(1935. 1), 153면.

14) 「삼천리 기밀실」, 8권 6호(1936. 6), 20~21면.

와 같은 편집 후기를 남긴다.

> 편집인으로서 한가지 所懷을 정직하게 말슴하겟슴니다. 이번 11월호에 主力를 너흔 記事는
> 1. 정치운동에 학생참가의 비판
> 2. 해외활약의 白衣士官들
> 3. 內外賓客의 印象의 세가지엇슴니다. 그래서 이것은 「三千里」의 큰자랑거리로 삼으려 햇슴니다.
>
> 그리하엿더니 第1題는 **정치운동의 「政」字도 못쓰게 되여 筆者이신 曺晩植 徐相日 元世勳, 기타 4氏의 원고 全文이 못실니게 되고 더구나 그것이 까닭이 되야 그 원고와 함께 검열에 너헛든 30餘題 약 2백매의 원고 전부가 엇던 變을 당하엿슴니다.**
>
> 그리고 第2題도 대부분이 죽엇고 第3題도 빼진 것이 잇게 되엿슴니다.
>
> 이와 갓치 2백매의 원고 전부가 그러케 된 줄을 안 것이 10월 26일 아츰이엿슴니다, 원고 **검열**은 10월 8일에 당국에 제출하엿던 터이외다. 이러케 되자 부득이 26일부터 밤을 새어 27일까지 사이에 그 보충될 원고 2백매를 急作하여 **재검열**을 밧게 되엿슴니다.
>
> 그러기에 이번달호의 내용은 예정보다 붓그러우리만치 여위고 頁數도 증가치 못하엿슴니다. 그리고 27일에 편집을 끗맛쳣스니만치 이번달호가 조곰 늣게 나왓슴니다. **나는 이 사정 이약이를 하여 여러분의 동정을 결코 사자는 것이 아니외다. 다만 잡지 편집자들의 직면하고 잇는 현실의 一面을 알려드릴 뿐이외다.**
>
> 來月은 12월호이외다. 1932년을 총결산하는 달이니 이달은 그런 의미로 조흔 편집을 할가하며 그리고는 新年號이니 이 新年號만은 一世에 격동을 줄 수 잇도록 조흔 체재와 내용을 가지고 뵈옵겟슴니다.
>
> **붓을 노흐려하매 中央日報가 나온단 소리가 들님니다. 언론기관의 부활갓치 우리에게 깃분일이 어대잇스릿가. 어서 朝鮮일보마저 나와서 半島의 論壇이 신문으로 잡지로 크게 떨처지이다 하고 비나이다.** (파인)[15]

흥미로운 것은, 김동환이 이처럼 검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1932년경부터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기 전까지의 중기 『삼천리』에 사회주의자 표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합법 운동가들의 이름이 공공연히 거론되는가 하면, 카프의 해소를 둘러싼 분분한 사정들도 소상히 실어 나르고 있다. 본고가 2장 및 3장에서 분석하는 기사는 대체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상범보호관찰법이 시행되고 일간지가 줄줄이 폐간되는 일제 말기의 상황은 3장 2절에서 다룰 것이다.

---

15) 「편집후기」, 4권 12호(1932. 12), 100면.

2. 성애화의 양상들 – 비합법 운동가들을 합법적으로 상상하는 법

1) 유혹하고 연애하고 배반하는 주의자들

주지하듯 일제 하 사회주의 운동은 일본 제국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 생장한다. 1925년 '적화방지'를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해를 거듭해 강화되고 1931년에는 합법 단체인 신간회마저 해체되자, 지하로 숨어든 사회주의(공산주의) 관련 운동은 대부분 비합법 운동의 형태로 전환된다. 합법 단체인 신간회 해체를 주도한 카프 맹원들이 실제로는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과 관련됐음을 눈치 챈 일경이 고경흠, 임화, 김남천, 안막, 권환, 박영희, 송영, 이기영, 김기진 등 카프 맹원 17명을 구속한 것이 1931년 8월~10월경이다.[16] 이 무렵 김동환은 '감사와 사죄'라는 부제의 편집 후기를 몇 차례 『삼천리』에 실으면서 사정상 주요 논문들을 싣지 못한 데 대한 사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을 가능케 한 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힌다. 잡지 편집인으로서의 고뇌와 자의식, 그리고 사명감을 적극 드러낸 것이다.

> 요지간 **아세아의 하늘 우에 떠도는 저 거문 구름장**이 어느 방향으로 장차 흐터질년지 몰라서 반도의 여려분께서도 자못 꿈자리가 사나울 것이외다. 이러한 관계인지 이달 호의 본지 또한 卷頭言을 위시하야 李晟煥씨의 「朝鮮農村과 外來資本」 及 某 중요 문제에 대한 50여 氏의 회답문과 崔麟씨에 與하는 공개장 洪曉民씨의 「露西亞의 11월 7일」 등 **실로 중요한 논문 7,8가지가 그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부 실니지 못하게 되어 11월호 잡지가 이 모양으로 빈약하게 되엿슴을 죄송스럽게 아나이다.**[17]

> 이번 달 잡지는 순조롭게 관문을 통과하엿더면 실로 一世에 자랑할 내용을 가지고 큰소리 웨치면서 나왓겟스나 **생각한 뜻을 이루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내노케 되니 좀 빈약하엿슴니다.** 그 대신 來月의 신년호는 조선 잡지계에 稀有의 장관을 가지고 출현하겟사오니 「삼천리」의 성장을 위하야 만히 愛顧하여 주시압. 여러분은 벌서 짐작하섯슬 것이외다. 그것은 **朝鮮의 언론의 중심이 신문사로부터 지금은 잡지에로 올마오고 잇는 경이적 사실**이외다. 이것은 당연한 일로 **이 뒤부터의 잡지의 언론진용은 일층 활기를 띄일 것이외다. 이 중임을 본지 또한 遺洩 업시 할 각오외다.**[18]

16) 카프와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의 관계 및 카프 제 1차 검거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190~230면 참고.
17) 「감사와 사죄-편집후기」, 3권 11호(1931. 11), 116면.
18) 「감사와 사죄-편집후기」, 3권 12호(1931. 12), 104면.

김동환이 잡지 편집인으로서의 고뇌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을 무렵인 1930년대 초반, 조선의 사상계는 요동치고 있었다. 합법단체인 카프마저도 ML파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 관련 혐의로 1차 검거 사건을 맞이하던 이즈음, 『삼천리』는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1930년대 초중반 '주의자'들에 대한 『삼천리』의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은 그저 '일단락'된 것[19]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조선공산당사건으로 검거됐다가 1932년 말 출옥한 이재유가 중심이 된 공산당재건운동은 1937년까지도 계속된다.[20] 그런 점에서 대다수 활동가가 지하로 은신할 수밖에 없었던 1930년대는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가장 빛났던 — 비록 지하에서이긴 했으나 —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비합법 사회주의 운동이 "지하에서 수공업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21] 1930년대, 『삼천리』는 사회주의라는 혁명적 사상의 전파나 비합법 활동가들의 체포와 투옥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성적인 유혹이나 남녀 간의 애증과 배반 같은, 대중적 호소력을 가진 수사(修辭)를 덧입힌다. 『삼천리』의 남녀 '주의자'들은 근대 초기의 '신여성'만큼이나 섹슈얼한 존재로 그려지면서, 다분히 선정적으로 읽히는 기사들의 주요 레퍼토리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널리 알려진 '붉은 연애'라는 클리셰에서 방점은 오히려 이 '붉은'에 찍혔다고 보아야 한다. '붉은 연애'의 히로인인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연애 경력이나 외모가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것은, '여성' 주의자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주의자' 일반에 대한 대중적 상상력이 이들을 끊임없이 섹슈얼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보다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적어도 민족주의자들을 재현하는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삼천리』안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대체로 성애화한 존재로 재현된다.

그렇다면 왜 『삼천리』의 주의자들은 성애화의 과정을 겪음으로써만 재현될 수 있었던 것일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김동환이 '정치 운동의 '정'자도 말하지 못하게 됐다'고 고백한 1930년대 초 거의 모든 사회주의/공산주의 관련 운동이 비합법화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주의자들의 활동이 불법화되었다는 것은, 혁명이라는 공적 과업이 '아지트'나 '하우스'[22]로 대변되는 극도로 폐쇄적인 사적 공간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추진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는 주의자—혁명가라는 공적 인물의 사생활, 즉 연애, 결혼, 우정, 사랑, 배신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삼천리』에서 환기되는 주의자들의 '지하'가 혁명을 도모하는 정치의 장이 아니라 인간적 애욕과 번민이 끓어오르는 하나

19) 이혜령, 앞의 논문.
20)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상숙, 2004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164~180면 ; 안재성, 2004 『경성 트로이카』, 사회평론 참조.
21) 전상숙, 앞의 책, 195면.
22) 이에 관해서는 장영은, 앞의 논문(2008 『대동문화연구』64집) 참조.

의 밀실처럼 그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자들의 '성과 사랑'은 지하 운동가들의 '지하 활동'에 대한 일종의 환유가 된다. 주의자의 성애화는 운동의 비합법화라는 외부 요인과 '지하=사생활=성(性)'이라는 대중적 상상력이 조합된 결과물이다. 즉 『삼천리』에 실린 주의자 간의 유혹, 연애, 배반의 서사들은 굴곡 많은 1930년대를 "합법의 영역에서 움직인"[23] 식민지 미디어 『삼천리』가 취한 득의의 전략이라 할 만하다.

우선, 사회주의라는 사상은 여타의 사상들과 달리 전파 경로 자체부터가 에로틱하게 그려진다. 국제 도시 해삼위에서 이루어지는 '적화공작'의 일단을 묘사한 기사 「군항 '해삼위'의 전모 – 赤露극동함대근거지」(1934. 11)에서 공작 주체로 그려진 것은 "길가에서 추파를 보내는 여성"이다. 해삼위에 정박한 한 선박의 선원을 유혹하는 이 여성은 노동자들의 별장인 '구락부'로 이 남성을 이끈다.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라는 정치공작을, 이국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젊은 여성의 활동으로 그린 것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여기에서 적화의 제일공작이 시작된다."라는 문장을 끝으로 이후 이야기가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 온 검열 관련 논의들을 참조해 본다면[24] '적색 에로 전술'이라는 이러한 수사법은 '합법 매체인 『삼천리』가 공산주의(자)라는 혁명적 사상(가)을 '합법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일종의 전략이라 할 만하다. 『삼천리』는 교묘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적화공작'의 의미를 드라마틱하게 풀어낸다. 우선 공산주의라는 혁명적 사상의 전파 경로를 이국에서 만난 남녀 간에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애욕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위 기사는 사회주의라는 사상의 철학적 깊이를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 기사는 혁명과 애욕이라는 두 항을 아주 근거리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주의라는 혁명적 사상에 대한 일반의 경계심을 대폭 낮추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누구나 주의자(혁명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혁명(가)의 위대함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혁명(가)의 편재성을 환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삼천리』의 성애화한 주의자 표상 문제를 논할 때 운동의 비합법화라는 맥락과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식민지 조선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청년 담론과 결속했던 사정이다.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 것은 전위로서의 '청년'이었고, 사회주의자들은 기왕에 형성된 근대적 청년상을 사회주의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제일 과제로 삼았다.[25] 청년이 전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계급의식의 자각'을 통해서였는데, "맑스 레닌주

23) 한기형은 카프 예술대중화논쟁의 핵심을 검열 체제에 대한 문인들의 관계 설정 방식에서 찾는다. 김기진은 "예술의 합법적 생존"을 강조했다면 임화는 "합법의 영역에서만 움직이는 식민지 미디어가 계급운동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한기형, 2009 「근대시가의 '불온성'과 식민지 검열」 『상허학보』 25, 130~135면.

24) 한만수, 한기형, 정근식 등의 논의가 있다. 상세한 서지는 생략한다.

25) 하지만 청년은 세대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이었으므로 계급 혁명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정립하기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어려웠다. 이기훈, 2004 「1920년대 사회주의

의자에게 계급의식이란 역사적 필연성을 체득하는 이성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르주아적 문화와 의식에 오염되지 않은) 순연한 계급의식에 눈뜨는 과정, 즉 **감성적·행동적 주체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26]이기도 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계급적 자의식이 혁명적 '감수성'과 직결되다 보니 "혁명이냐 연애냐"라는 최서해식의 화두가 가능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27] 사회주의 청년의 본질이 "계급의 본성을 솔직하게 발휘하게 하는 **감성적 특성**에 가까운 것"[28]이었기에, 주의자–청년에게 '연애'는 '혁명'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띠는 일생일대의 과업일 수 있었다.

「현대여류사상가들(3) –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1931. 7)이라는 기사는 운동의 비합법화라는 정치적 상황과 주의자–청년이라는 새로운 세대론적 계급의 발생이 『삼천리』의 주의자 형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글이다. '여류사상가들'의 연애담이라는 외피를 걸치고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 기사는 '운동의 비합법화'라는 경색 국면과 '청년=주의자=연애=혁명'이라는 당대의 세대론적 계급 담론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애하는 (여성)주의자들을 형상화하는 『삼천리』의 독특한 관점이다. 아래 기사의 도입부에서 기자는 "부자유스런 붓끝"으로는 "당당히" (여성)주의자의 사상과 지조를 밝힐 수 없어 연애 이야기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데, 이어지는 기사 내용을 보면 서두의 이 고백을 '동반자'적 자의식의 발로로 볼 근거는 충분하다. 물론 이 기사는, 허정숙이 아빠 다른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거나 하는 다소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내용도 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는 혁명가의 사생활을 들추는 관음증적 시선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는 작업에 수반된 불안한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 大正14년(1925년) 첫여름 국경 압녹강의 양양한 푸른 물결우에 한가락의 구슬픈 「볼가」의 뱃노래와 함께 망명객의 외로운 그림자가 水波를 따러 뜰낙말낙할때에 **突然히 新義州 警察署의 손에 「朝鮮共産黨」이란 地下層的 방대한 조직이 발각되면서 金若水, 兪鎭熙, 權五卨, 洪悳裕, 金在鳳, 朴憲永, 林元根, 金璟載等 巨頭들이 잡힌 뒤**를 이어서 또 純宗帝의 因山때 6.10만세로 姜達永 계속하여 第2, 第3, 第4次 結社로 金俊淵, 李英, 朴衡秉, 洪陽明, 李炳儀, 車載貞等 이땅 思想運動의 知名의 巨人들이 다수히 철창에 억메이게 된 그 사실은 젊은 조선사람이면 다아는 일이라 다만 이러케 一月會요 火曜會요 서울系요 北風系云云하면서도 다가튼 方向을 위하여 불고치를 가슴에서 뿜는드시 늘 灼熱하여 **밤낫 땅밋흐로 도라다니든 이 多數한 鬪士의 身邊에는 妙齡- 꼿과 가튼 아름다운 맑스껄, 엥겔스레디들이 마치 구름자 모양으로 그뒤를 따르면서 殺風景한 이 思想運動線上에 한떨**

이념의 전개와 청년 담론」, 『역사문제연구』 13, 297면.

26) 위의 논문, 303면.

27) 권보드래, 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141–145면 ; 손유경, 2008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참조.

28) 이기훈, 앞의 논문, 304면.

기의 꽃수를 노아주엇다.

언제 잡힐는지 모르는 한낫 생명들이매 번개가티 잠간잠간 맛나는 그동안에 강철가튼 굿은 사랑의 殿堂이 둘의 사이에 싸여지는 것이요 새 연애관 새 사회관을 가진 몸들이매 세상의 전통적 결혼관념을 춤 배앗고 줏 밟고도 태연하여한다. **그를 理解할진대 우리들은 오히려 그를 떳떳하다 하여야 올흘것이 아닐가.**

여기 이 巨頭들과 直接間接 愛慾의 불길우에 뎌노든 10娘子가 잇스니 우리는 「그 붉은 戀愛」의 실마리를 풀어 보기로 하자. **다만 近代의 思想界에 勇敢하게도 놀내질하고 잇든 이 여러 女流思想家를 正面으로 堂堂히 그 思想 그 志操를 紹介하지 못하고 겨우 행낭 뒷골로 도라가서 愛慾의 푸로필을 通하여 描寫하려하는 이 不自由한 붓끗을 讀者諸氏는 용서하여 주실 것을 豫期하면서도 이러한 筆觸에 諸娘子를 올님을 未安스럽게 아노라.**[29]

'언제 잡힐지 모르는 채로' '밤낮 땅 밑으로 돌아다니는' 투사들 주변을 꽃 같이 아름다운 '맑스 걸' '엥겔스 레이디'들이 수놓고 있다는 상투적 표현은, 애욕의 프로필로써 여성 주의자들의 면면을 밝힐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붓끝을 널리 이해해 달라는 필자의 간곡한 부탁과 묘한 대위법을 형성한다. 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거두'들을 "떳떳하게" 여기자면서도 기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겨우 행낭 뒷골로 도라가서 애욕의 푸로필을 통하여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김동환이 검열이라는 사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피검열자로서의 고충과 자의식을 뚜렷이 드러낸 시기에 쓰인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일제의 검열에 『삼천리』라는 합법 매체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기사는, '연애담'이라는 가벼운 이야깃거리 속에 대부분이 '正黨員'인 요주의 인물들의 투옥과 망명담을 지뢰처럼 숨겨 놓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유의 기사들 때문에 일제는 '결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문에 사용되는 '불온한 문장'들이 모두 다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구체적 검열지침[30]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세 명의 여성 '正黨員'을 일일이 소개하는 부분이다. 남수라, 현계옥, 정학수 세 사람 모두가 정식 공산당원이라는 자못 불온한 정보가, 남녀 주의자들의 연애담(널리 알려진 허정숙-임원근, 황신덕-유진희, 주세죽-박헌영 등의 연애담)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 붉은 연애 이야기를 들려준다면서 정작 공산당원 정보를 흘리고 있는 셈이다.

---

29) 草土, 「현대여류사상가들(3) -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 17호(1931. 7), 13면.

30) 한만수는, 1930년대 일제의 검열지침(총독부 도서과에서 정리한 일반검열표준 및 특수검열표준을 제외한, 기타 기관들의 공식적 검열 기준)을 부분주의와 맥락주의로 구분해 설명한다. 부분주의란 금지어와 금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맥락주의란 검열 목표와 당대적 맥락 등을 고려해 검열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행되는 검열 방식을 각각 뜻한다. 한만수, 2006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한국어문학연구』 47, 290~295면.

海外에 밧나는 麗人 三月星' – 海外에는 思想運動線上에서 跳躍하는 이가 더욱 만타.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著名한 이로 세분을 摘出하리라. (중략) 이미 配人을 이른 가을하늘 외기럭이가튼 南女史[남수라]의 로-만스를 둘춤이 한갓 괴롬을 더할뿐이 아닐가. **그는 正黨員이다.** 둘재로는 玄桂玉氏다. (중략) 그 뒤 玄鼎健이 上海에서 잡혀서 朝鮮에 도라나와 平壤法院에서 4년의 判決을 밧고 지금 服役하고 잇는데 일이 이러케 되자 玄桂玉女史는 모스꾸바로 가서 큰일을 하고 잇다든가. **그도 正黨員이다.** 마즈막으로 우리는 鄭學秀女史를 들어보겟다. (중략) **그 亦 正黨員이다.**[31]

세 명의 여성 '정당원'을 언급해 놓고, 김단야의 애인 고명자를 거론하면서는 당원이라는 단어를 복자 처리("唯一最初의 女X員인 紅一點의 高明子")하는 이중적 포즈도 취한다. 뿐만 아니라 주세죽-박헌영의 도피 생활을 소개하면서 필자는 "아마 지금쯤은 먼-먼 하늘아래에서 故國의 하늘에 뜬 별들을 두분이 억개를 나란히 하고 한낫둘, 한낫둘 헤고 잇지 안을가."라는 감상적 멘트를 덧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고국'이라는 단어가 국토에 대한 불온한 상상력을 부지중 환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삼천리』에 나타난 유혹하고 연애하는 주의자들은, 또한 배반하거나 배반당하는 청춘남녀로 그려지기도 했다. "밤낮 땅 밑으로 돌아다니는" 주의자-청년의 이념과 사랑은 동지나 애인의 배신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드라마틱한 서사를 창출하게 된다. 서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충실성(fidelity)을 그 생명으로 하는 비합법 지하 운동은 이념이나 사람을 배반하는 이들을 필연적으로 곁에 둘 수밖에 없었고 『삼천리』는 바로 이 점을 포착했다.

흥미롭게도 『삼천리』 3권 10호는 독자 실화 현상 공모 주제로 '배반한 동지'라는 의미심장한 타이틀을 선택한다. 당선작으로 소개된 세 편의 글은 모두 동지에게 배신당한 주의자들의 경험담이다. 첫 번째 당선자 오영근은 자신이 몸담은 프롤레타리아 운동 진영 내부의 타락 간부 두 명을 고발한다. "라-더라고 숭배밧든" 한 사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XX의 끈이풀이 되여버리고 말엇"으며 덕분에 "우리들은 어두운 감방에서 오래동안 살과 기름을 째우게 되엿"다고 분개한다. 배반한 이 리더는 "XX경찰서의 XX라는 훌융한 일홈 밋헤서 불절의 활약을 보혀주고 잇"다는 근황까지 덧붙이고 있다. 또 한 명의 타락한 간부는 변절하여 "XX대의 SPY"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다. '평북 仁風'이라고 자신을 밝힌 두 번째 당선자는 '××단' 활동을 위해 국경을 탈출할 때 자신과 동행했던 여인 春桃가 동지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의 꾐에 빠졌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이 독자는 "오직 수백의 동지가 모다 독신임에 나 홀로 여성을 동반하는 붓그러움만 탄"하였을 따름이라고 담담히 술회하면서도,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痛忿의 念"을 금하기 어렵다고 고백한다. 검열로 삭제된 부분이 많아 독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글 말미

31) 草士, 「현대여류사상가들(3) –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 17호(1931. 7), 15~16면.

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언급이 덧붙여져 있다.

> 나는 이 사실을 나 개인으로 볼 때 오직 「기맥히는 일」로 임의 7, 8년 경과 하엿는지라 黜殺하랴 하엿지만 **貴社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취급함은 다만 흥미적 사실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엇더한 교훈과 이익을 주려함이 아닐가** 하고 붓을 들엇노라.[32]

즉 이 당선자는 '배반한 동지'라는 타이틀의 현상 공모를 기획한 『삼천리』가 단순히 흥미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엇더한 교훈과 이익"을 주려 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삼천리』는 조선 사회에 어떠한 교훈과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일까.

같은 권호에 민병휘가 쓴 「애욕문제로 동지에게」라는 서간체 형식의 글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약혼자를 배신한 여성과 원수가 된 두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글에서 필자인 민병휘는 "小뿌르조아식 연애를 하려면 계집의 치마에 싸히여 죽어버려라."라는 극단적 발언마저 하고 있다. 전술상 동거나 "X들을 「캄푸라쥬」 하는데" 필요한 남녀 관계 이외의 모든 연애 감정은 "절대 금물"이라면서, 필자는 "연애-즉 애욕문제는 투쟁을 위하는 일시 X術이여야 하지 연애를 위한 투쟁 애욕을 위한 싸홈은 계급적으로 금물"이라고 주장한다.[33] 민병휘가 주의자의 연애 문제에 이토록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사랑이 변하듯 신념도 변한다는 사실을 그를 포함한 주의자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밀실'을 필요로 하는 지하의 운동가들에게는 (애인의) 배신과 (동지의) 변절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은 사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상 공모자가 지적했듯, 아마도 『삼천리』는 배신과 변절이 초래하는 주의자 간의 불화와 위기라는 민감한 이슈를 현상 공모를 통해 공론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추적양의 「근대 연애풍경」(3권 11호(1931. 11))이라는 짤막한 픽션은 서간도를 떠돌다 계급의식에 눈뜬 청년 세혁이 임시로 취업을 하지만 카페에서 알게 된 한 여급 해란과 사랑에 빠져 당장 부르주아적 생활을 청산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반동이고 계급이고 무엇이고 그런 생각이 염두에 둘 틈조차 업"이 그녀가 진 빚을 갚는 데 혈안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세혁이 과로로 폐병을 얻게 되자 해란은 공장의 여직공이 되어 달라던 세혁의 당부를 한껏 조롱하며 폐병쟁이가 된 그를 단호히 물리친다. 세혁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이 단편은 "계급

32) 「현상발표-배반한 동지」, 3권 10호(1931. 10), 87면.

33) "계급적 운동자에게는 연애라는 정서적 행동은 금물"이라는 민병휘의 주장은 기실 연애에 대한 적의보다는 연애에 대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영은이 지적한 바 있듯 연애가 혁명만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토록 열성적으로 연애 청산론을 부르짖을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영은, 앞의 논문, 198~200면.) 즉, 민병휘는 연애=혁명, 배신=변절이라는 구도를 취함으로써 연애와 혁명의 등가성 내지는 연애 감정의 결정적 중요성을 설파해버리고 만 것이다. 이는 최서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서해 소설 속 청년들은 연애의 가치를 극력으로 부정함으로써 거꾸로 연애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입증하고 만다. 이에 관해서는 손유경, 앞의 논문 참조.

적 운동자에게는 연애라는 정서적 행동은 금물"이라고 신신당부한 민병휘의 글에 대한 문학적 화답이 될 만하다.

이렇게 『삼천리』는 유혹하고 연애하고 또 배신하는 주의자들의 형상을 부조(浮彫)함으로써 비합법화한 사회주의(자)를 합법적으로 상상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 지하의 번민과 고통을 지상의 문법에 맞춰 각색하는 과정은 그런 점에서 불온한 작업임에 틀림없었다. 남녀 주의자들의 연애사는 지하공작이라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낭만적 환유가 된다. 그리고 연애 이야기에 변절과 변심이라는 극적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연애는 다시 한 번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는데, 애인의 변심은 주의자의 변절이라는 비극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2) 수감자/배우자의 성욕과 옥중 로맨스

『삼천리』의 주의자 관련 기사는 거의 대부분 감옥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삼천리』의 주의자는 무엇보다도 수감자, 入獄者, 혹은 출옥자였다.[34] 이와 관련해 아래 권두언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엇든 때, 엇든 곳에서든지 우리들은 셋만 모여 안지면 그중에 한둘은 **빗군, 병자, 출옥자**가 끼이게 된다. 아니 심한 경우에는 셋이 모다 그러한 때가 잇다.
>
> 빗군이 만흔 것은 실로 우리의 특색이다. (중략) 병자 또한 만타. 작년 일년동안에 사망한 수효가 40만명이요 자살자가 700여명이며 현재 병드러 누은 환자 또한 몃백만명인지 모른다. **우리는 엇재서 병자와 사망자가 이러케 만허지는 그 원인을 캐려하지 안는다.**
>
> 그밧게 **출옥자도 일년동안에 수천명을 헤이고 재감자가 수만명이 잇서 더 자세한 통계를 들것업시 가튼 경향을 바라볼수 잇다.**
>
> (중략) 이에 따라 농촌의 격렬한 계급분화와 민족뿔조아지의 반동과 도시실업자의 격증등 현상을 나아서 우리운동에 저절로 한박차를 加하여 노을 뿐이다.
>
> 이에 이르러 다시한번 우리들 사이에는 행복의 씨가 자라고 잇느냐. 불행의 씨가 더 만히 자라고 잇느냐. **대체 셋이 모흐면 그중에 몃치나 행복스러운 자 잇스며 장차 행복스러울 자 잇느냐 하는 것을 더한번 웨우쳐보지 안을수 업다.**[35]

조선 사람은 셋만 모여도 그 중엔 반드시 빚진 사람, 병든 사람, 출소한 사람(혹은 수감 중인 사람)이 있다는 위 권두언이 실감날 만큼 『삼천리』의 감옥 관련 기사는 풍부하고 다채롭다. 이 권두언의 표현대로 조선 사회에는 매년 수천 명의 출옥자와 수만 명의 수감자 발생하고 있었는

34) 체포, 투옥의 계기가 비가시적 존재인 주의자를 어떻게 가시성의 체계로 전이시켰는가에 관해서는, 감옥이라는 표상에 대한 이혜령의 정치한 분석이 있다. 이혜령, 앞의 논문 참조.

35) 「권두언-세사람중 몃치나 행복하냐」, 17호(1931. 7), 1면.

데, 본고의 주된 관심은 주의자로 대변되는 각종 사상범[36]의 옥중 경험을 묘사하는 『삼천리』의 독특한 관점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삼천리』에 실린 방대한 양의 감옥 관련 기사를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은 지면 관계상 일단 생략하고 수감 중이거나 출옥한 주의자들과 그/녀의 배우자들을 성애화·낭만화하는 일련의 주요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삼천리』가 주의자의 수감 경험을 그리는 방식은 성애화(eroticization)와 낭만화 (romantic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삼천리』는 감옥과 관련된 기사를 꾸준히 곳곳에 배치해 식민지치하 조선인의 감옥 경험을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환기한다. 특히 『삼천리』는 주의자의 옥중 경험과 밖에 남겨진 배우자의 근황을 자주 기사화해, 지하(감옥)로 추방된 비합법 운동가들을 지상(地上/紙上)의 대중 앞으로 불러낸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지하공작의 좌절을 의미하는 비합법 운동가들의 체포와 투옥을—마치 이들의 지하공작에 유혹, 연애, 배반의 패턴을 입혔듯이— '혁명'의 실패가 아닌 '연애'의 실패로 의미화한다. 사상범·정치범을 호출해 놓고 이들에게 수감 중 성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는다거나, 남성 수감자의 아내들을 모아 놓고 남편이 감옥에 갔을 때 처는 수절해야 하느냐고 묻는 식이다. 문제는, 주의자에 대한 제국의 지배와 폭력이 이처럼 성애화될 때, 제국 권력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주의자 취체는 생물학적 문제로 간주되어 비정치화된다는 점에 있다.[37]

한용운, 임원근, 심훈 세 사람을 등장시킨 13호(1931. 3)의 기사 「在獄中 성욕문제」라는 글에서 한용운은 "本能을 막는 것은 人道上의 問題"라면서 재소자에게도 규정에 따라 가족과의 동실을 허락하는 구미의 경우를 소개한다. 수인에게도 성생활을 허락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심훈은 "監獄生活은 克己와 自制의 修養하는 조흔 機會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욕의 '승화'를 강조한다.

정작 흥미로운 것은, 제 1차 공산당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임원근의 경우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홀로 방에 갇혀 있는 까닭에 "性問題에 대하여는 가장 괴롬을 아니 밧을수 업섯다." 라면서 감옥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는 "率直하게 말하면 몃철에 한번씩 手X을 하엿"다라고 고백한다. 용수를 쓴 채 병감으로 면회 온 여성들의 치맛자락이며 말소리조차 남성 죄인들을 흥분시켰다는 대목도 있다.

> 나는 再昨年이든가 病監에 드러잇든 親舊가 病이 重하게 되자 그 家族들이 急한 때이라 病監까지 드러오는 것을 본일이 잇다. 둘은 中年婦人이지만 한아는 20內外되는 머리 따는 少姐엇다. 勿論 그네들은 看守의 식힘으로 용수를 써섯다. 그러치만 **그 치마자락, 머리태, 힌손, 부드러운 말소리,**

36) 사상범은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정치범이라는 광범위한 용어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혜령, 앞의 논문, 103면 참조.

37)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폭력이 성애화될 때의 문제에 관한 정희진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82~86면.

그는 모든 男性罪囚를 亢奮식히기에 충분하엿다.

말이 퍽으나 「구로테스크」하여 順하게 繼續할 수 업스나 在獄中 性慾問題에 대하야 나의 經驗을 率直하게 告白한다면 처음 入獄하야 얼마는 心神이 가라안지 안어서 性方面에 대한 雜想이 적엇섯다. 그러나 生物은 언제든지 周圍環境에 適應하게 生活方式을 꾸며내는 것임으로 약 2, 3個月 지내니 그제부터는 이 生理的 問題에 煩悶아니 하엿다고 告白할 勇氣가 업다. **率直하게 말하면 멋철에 한번씩 手X을 하엿든 것이다.**[38]

이 문제와 관련해, 사상범(혹은 정치범)의 특권인 '감옥의 서사'가 '썼다'는 형해화된 형태로밖에는 드러날 수 없었으며, 설령 쓰인다 해도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결코 언급될 수 없었다는 이혜령의 지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비가시성'의 영역에 붙들린 주의자들의 감옥 체험 서사에서 모든 정치적·역사적 맥락을 제거하고 남은 것은 다른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회주의자의 '육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갈증에 고통 받는 주의자-수인을 형상화한 감남천의 단편 <물>(1934)이 감옥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감옥의 의미를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고 임화 등이 비판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김단야, 박헌영 등과 더불어 1921년 고려공산청년동맹을 결성한 바 있고 1925년 제 1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30년에 출감한 '주의자' 임원근으로 하여금 '며칠에 한 번씩은 수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게 만든 『삼천리』의 위 기사는, 그런 점에서 감남천의 단편 <물>이 대표하는 1930년대 감옥 체험 서사의 한 원형(archtype)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수인의 '성욕 문제'를 해소하거나 승화시켜야 한다는 한용운, 임원근, 심훈 등의 발언이 임원근의 표현대로 "퍽으나 「구로테스크」"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삼천리』가 '在獄 巨頭'라 즐겨 불렀던 사상범/정치범들을 다름 아닌 『삼천리』가 '우리에 갇힌 수컷'의 세계로 하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였다. 여섯 사람의 짤막한 글을 실어 놓은 「男便 在獄亡命 中 妻의 守節問題」(10호(1930. 11))라는 기사에서는 후일 연인 관계가 되는 허정숙('理想과 現實은 다르다')과 송봉우('貞操를 절대 嚴守하라!')가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흥미로운데, 사실 그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성욕과 신의에 기반을 둔 사랑을 구별하는 여섯 인물의 방식이다. 근대 초기 영육일치의 연애론을 상기시키는 이 기사에서 송봉우와 허정숙은 일견 다른 의견을 내놓는 듯 보이지만 둘은 동지로서의 아내와 그렇지 않은 아내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2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여기서도 역시 배우자의 변심은 동지의 변절 문제와 동궤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절해야 한다, 때에 따라 다르다, 수절은 불가능하다 등등 주장은 다양하지만, 만일 수감자의 처가 처인 동시에 동지라면 반드시 수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섯 사람이 최소한 합의한 듯하다. 문제는 동지 아닌 '그냥'

38) 「在獄中 성욕문제」, 13호(1931. 3), 53면.

아내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급진적 발언을 하는 정칠성과 유영준은 이를 과부 개가 문제와 연결시킨다. 먼저 정칠성은 "主義者도 인간이고 思想家도 동물"이라면서 "인생의 본능인 성욕을 무제한하고 참으라 함은 과부에게 정조를 강요하든 時代遲의 도덕이나 조곰도 다를 것이 업"다고 주장한다. 유영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엇더케 성적 본능을 막어가며 또 독신으로 생활의 질을 엇을 수 잇"겟느냐면서 "육체의 접촉이 업슴에 사랑이 식어갈 것은 定한 일"이니 "마음에 업는 忍從을 계속한다함은 과부에 정조를 강요하든 봉건사상"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수감 중인 주의자들과 밖에 남은 배우자를 "인생의 본능인 성욕" 때문에 번민하는 존재로 형상화한 이들 기사에서 정작 가장 강한 성적 구속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동지로서의 아내라는 점이다. 투옥된 남성 주의자들의 성욕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었으나 밖에 남은 아내의 성욕은 조건부적으로 긍정됐다. 즉 동지 아닌 아내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동지인 아내는 반드시 수절해야 했다. 투옥된 남성-주의자보다 감옥 바깥의 여성-동반자에게 더 강한 성 윤리가 부과된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하/해외/감옥을 혁명의 전초 기지로 삼을 수밖에 없는 비합법 운동가들에게 가장 큰 시련과 공포는 다름 아닌 동지의 변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됐듯 애인(배우자)의 변심이 동지의 배반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강력한 환유로 작동했다면, 투옥이나 망명 중인 주의자 남편을 배반하는 일은 단지 그 남편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가졌던 주의를 배반하는 일로 상상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을 옥중에 보내고」(1931. 11)라는 기사에 등장하는 두 명의 아내 鄭寶榮과 崔月華는 매우 모범적인 동지-아내로 그려지고 있다. 허헌의 아내로 자신을 밝힌 정보영은 지난 시절을 회고하며 남편과 딸(허정숙)을 모두 감옥으로 보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그럿타고 남편과 딸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나고 권하고 십지도 안"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최월화 역시 "불행한 환경에 태여난 우리들 푸로레타리아트로써는 언제나 밧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을 각오하지 안으면 안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불태운다.

배신-변절에 대한 팽배한 공포감 덕분에 감옥은 오히려 낭만화될 수 있었다. 고문과 형벌로 얼룩진 감옥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로맨틱한 사랑의 무대로 변형시키고 있는 주요 기사들을 보자.

> 역자주-朴烈의 愛人 金子文子가 最後의 마당에 안저 獄中에서 그의 동무 某氏에게 온 辭世의 遺書가 이것임니다. 原文은 훨신 더 길고 여러 장이지만 온갓 事情 때문에 다 실지 못하고 여기에는 겨우 以上만 실엇슴니다. 死刑을 압페둔 女罪囚의 記錄- 깁히 深藏되엇든 것이니 熟讀할 것인가 함니다. 더욱 原文은 日文인 것을 飜譯하엿고 노래만은 그대로 두는 것이 조흘 듯해서 그대로 두엇슴니다. **그러고 朴烈과 金子文子의 事件이나 두사람의 戀愛關係등은 이미 다 알 것임으로 여기에는 飜復치 안슴니다.**[39]

인용된 역자주가 달려 있는 기사 「朴烈愛人의 最後遺書, 監獄에서 某氏에게 보낸」은 조선의 유명한 아나키스트 박열의 일본인 애인인 가네코 후미코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번역한 기사이다. 혁명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철저히 긍정하고 있는 가네코 후미코의 이 편지를 번역하면서, 역자는 박열과 그녀 사이의 연애가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있다.[40] 『삼천리』 제 8호(1930. 9)에서 주요 활동 내역은 전부 삭제된 상태로 '테로리스트'로 명명됐던 박열과, 일본의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라는 요주의 인물을 지상(地上/紙上)으로 호출하면서 『삼천리』는 둘의 연애사를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4권 10호(1932. 10)에 실린 「옥중생활 로-맨스」라는 기사는 감옥에서 있었던 로맨스를 기록하라는 『삼천리』의 요구에 김경재, 우봉운, 한용운이 각각 응답한 경우이다. 가장 눈에 띄는 글은 김경재가 쓴 '꼿다발 가지고 온 女子'이라는 글이다. 1926년 제 2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으로 체포돼 1929년 출옥한 '왕년의' 비합법 사회주의 운동가 김경재[41]는 서대문 형무소 바깥에서 간수 몰래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정종명과 조원숙을 떠올리고 있다. 사흘 동안 형무소 담장 너머 한길에 서서 붉은 꽃을 한아름 안고 고운 노래를 불러주던 젊은 여성이 다름 아닌 정종명과 조원숙이었다는 것이다.

> 그때 분홍저고리에 힌치마를 입은 그녀자, 나는 그 얼골을 분명히 볼 수 잇섯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가 잇는 鄭鍾鳴! 그 뒤에 알고 보니 그때 갓치 와서 노래부르든 여성이 趙元淑씨라고 하더라. 그 두사람은 우리들 XX사건 관계자들이 모다 X翼 압박골을 향하여 잇는 房에 가치어 잇다는 말을 듯고 삼춘가절이 되고 하니 위로하려 와 주엇든 것이다. 출옥하고 드르니 사흘 뒤에는 간수들이 안배가 되어 그 근방으로 가게 못하여 그만 두엇다고 한다. 나는 이 사흘동안의 일이 영원히 이처지지를 안는다.[42]

위 기사에서 'XX사건'으로 표현된 정치적 사건은 실상 그 어떤 정치적·역사적 맥락도 환기하지 않는 탈정치적 기표로 화하고, 아련한 추억, 꽃, 여성, 노래라는 환영물이 기사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삼천리』 안에서는 주의자 자신도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묘사하거나 기억하고 있었다. 임원근이 8호(1930. 8)에서 10호(1930. 11)까지 세 번에 걸쳐 『삼천리』에 실은 「獄中記」에는 임원근 자신을 포함해 성애화된 주의자들의 형상이 다채롭게 그려진다. 임원근은 연재 첫 회

39) 「朴烈愛人의 最後遺書, 監獄에서 某氏에게 보낸」, 14호(1931. 4), 54면.
40)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관해서는 야마다 쇼지(정선태 옮김), 2003 『가네코 후미코』, 산처럼 참조.
41) 김경재는 제 2차 조선공산당 사건 당시 검거되어 1929년 출옥하는데, 이후 합법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이후 창씨개명을 한다.
42) 「옥중생활 로-맨스」, 4권 10호(1932. 10), 39~40면.

를 "獄中生活의 感想을 적어보려는 것이 筆者의 本意입니다마는 그 亦 거북한 우리 環境이 感想 그대로를 적을 수 업게 되는 點이 만"다는 양해의 말로 시작한다. 감옥 체험 서사를 속엣 말 그대로 적을 수 없게 만드는 "거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옥 수기를 쓴다는 것은 임원근 개인에게는 일종의 과거 청산을 의미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43]

임원근은 "오-이 사람들이 요前에 서울서 붓들녀온 자-主義者들이로구면"이라는 군중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신의주 감옥으로 호송되던 1925년 당시에 대한 회고를 시작으로 옥중 체험을 써내려간다. 그가 회고하는 감옥 생활은 몸서리쳐지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 끓어오르는 성욕 등으로 고통 받는 몸에 대한 기억으로 점철돼 있다. 남의 밥을 빼어 먹다 매 판결을 받은 재소자를 동정하던 일, 독방 밖에서 들린 일본여인의 말소리에 미친 듯이 가슴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 사무복 입은 50이 넘은 할머니여서 매우 실망했던 일, 간수가 일본인 기결수를 두고 미결 피고인인 자신에게 전구 교환을 시키자 그가 알미워 못 하는 시늉을 해 골탕 먹여 설분한 일("이것도 조선인과 日本人의 차별문제가 붓는 세움인가? なるほど 그럴 일이야, 에라 그러면 나는 심술이나 부려 볼 수 밧게") 등이 담담히 서술된다.

이런 에피소드들 중에는 '소도미 사랑' 즉 동성 간 성관계를 맺는 남성 재소자들의 실태를 소개한 대목도 있는데, 이에 관해 임원근은 "위생과 非衛生, 야만과 문명은 이갓흔 특수지대에서는 問題도 아니된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고 있다. "萬一에 뜨거운 피가 뛰노는 젊은 청춘으로서 재감 數年동안에 오즉 한차례의 手淫이라도 經驗하지 못하엿다면 그는 確實히 不具者의 일홈을 바들만한 者"라는 임원근의 판단은, 「在獄中 성욕문제」(13호(1931. 3))라는 기사에서 '그로테스크한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는 그의 이력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정확하다. 숙소 입구의 '검신대(檢身臺)'에서 모든 재소자들이 작업복을 벗은 채 알몸 상태로 검사당하는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한 부분도 눈에 뜐다. 이 와중에도 임원근은 미인 타령을 한다. 그러면서 그는 병들고 씻지 못해 더럽고 냄새나는 수인들의 몸을 극도로 혐오면서도 눈물 없이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고백한다.[44] 감옥 안에도 "부르아쥬囚와 푸로레타리아囚"라는 계급이 있어 "우리 갓흔 인테리견 자層의 政治犯들"은 "함부로 看守들에게로부터 『이자식 저자식』소래를 드르면서 꽝꽝 어더맛지를

43) 김단야와 박헌영이 '국제선'에 따라 당재건 운동에 몰두하고 있을 당시 출옥한 임원근은 1933년 진보적 신문으로 이름 높던 『조선중앙일보』에 입사하지만 이후 비합법 노선과는 분명한 거리를 둔다. 임경석, 2008 「트로이카-김단야·박헌영·임원근」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역사비평사, 66면.

44) **"이갓흔 裸體行列 속에도 드문드문 裸體美人이나 석겨 잇다면 그 눈부시는 曲線美와 魅力에 屈辱도 羞恥도 이즈련마는 나는 바로 말이지 하로 두차례씩 裸體行列을 지을 때면 禍가치미러서 견딜 수가 업섯다.** 고만 人生에 對한 말할 수 업는 憎惡와 倦怠를 늣기게 되엿다. 무엇보다도 第一로 시-금하고 퀴퀴한 냄새나는 그 몸덩이들이 보기 실혓다. 더구나 모루히네쟁이 침재죽과 옴쟁이 濃汁, 치질쟁이, 梅毒쟁이, 骨薰品갓흔 늙은이 몸덩이들이 尤甚히 嘔吐가 나섯다. 肋骨이 들쑥날쑥한 가삼에다 푸르둥둥한 볼기짝을 내두르며 거러가는 樣은 참아 볼 수 업섯다. 그러나 零下 14,5度나 되는 겨울 아참에 힉힉 늣기면서 강정거름을 거러가는 이 珍奇한 裸體行列의 流動體는 **뜻깁흔 長數聲과 속힘업는 눈물 아니고는 도저히 그 정체를 바라볼 수 업섯다.**" 임원근, 「옥중기」, 10호(1930. 11). 31~32면.

안는"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범들은 체면 때문에 옷이나 밥이 좀 부족해도 나서지를 못하고 대체로 양보를 하는 바람에 "골키는 은근히 혼자 골는다."고 술회한다.

3회에 걸쳐 연재된 임원근의 옥중기는 통계 수치로만 제시됐을 식민지하 감옥과 재소자들의 면면을 더할 나위 없이 리얼하게 묘파한 글이다. 옥중기를 쓰고자 하지만 '감상 그 자체를 적을 수 없는 거북한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도입부의 고백을 제외하고는 어떤 고백도 허락되지 않는 이 수기에서, 임원근을 자신을 '수음하던 재소자' '성에 굶주린 수감자'로 형상화한다. 박헌영이 모스크바에서 발간된 국제혁명가후원회 기관지 『모프르의 길』에 투고한 「죽음의 집, 한국의 감옥에서」라는 글에서 묘사해 놓은 지옥 같은 사상범 심문 과정이[45] 식민지하 합법 매체인 『삼천리』에 반영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임원근의 자화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수음하는 주의자'의 형상은, 유혹하고 연애하고 배반하는 주의자-청년상과 마찬가지로, 『삼천리』가 사회주의 사상가·운동가들을 어떻게 재현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재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준다.[46] 주의자를 그리고 있는 『삼천리』의 기사들, 특히 주의자의 감옥 체험을 다루는 일련의 기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의자가 겪은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 오카 마리가 역설하듯, 당사자밖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과거의 어떤 폭력적 사건, 다시 말해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폭력인 극한의 고통스런 경험(이를테면 전쟁이나 수용소의 경험)을 재현하는 일련의 서사는, 그 근원에 있어 '사건'의 폭력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정말로 독자/관객에게 육박해 그들의 주체성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되겠기 때문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 작품은 "관객을 '사건'의 '실감'을 향유하는 주체로 만든다. '휴머니즘'과 '엔터테인먼트'의 훌륭한 융합"[47]인 것이다. 그렇다면 『삼천리』의 성애화된 주의자 형상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즉 이러한 기사들은 "사건을 그와 같은 것으로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독자의 욕망에 호응한"[48] 서사라고 말이다. 서대문 형무소라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인간은 수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서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일경의 고문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건'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즉 검열관일 수도 있고 『삼천리』의 일반 독자들일 수도 있다. 성애화라는 재현의 틀을 『삼천리』의 주의자들이 벗어던진다면, 더 이상 독자들은 주의자가 겪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저항의 경험들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이라고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45) 임경석, 앞의 책, 49~50면.
46) 한만수는 '쓸 수 있었던 것'으로서의 문학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47) 오카 마리(김병구 옮김), 2004 『기억·서사』, 소명출판, 95면.
48) 위의 책, 161면.

3. 주의자에 대한 기억 나누어 갖기

1) '사라진 거물'에 대한 회고와 소문

『삼천리』가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을 재현하는 가장 특징적인 방식은 다름 아닌 회고이다. 『삼천리』는 주의자의 현재보다는 과거를 즐겨 그리고, 사상계의 현안을 건드리기보다는 전성기의 사상계를 회상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삼천리』는 회고성이 농후한 잡지라는 김근수의 지적[49]은 『삼천리』의 주의자 형상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50] "뭔가 새로운 지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과거를 본다."[51]라고 한 가라타니 고진의 지적을 상기해 본다면, 『삼천리』를 생산하고 소비한 주체들이 어떤 새로운 지점에 도달했기에 『삼천리』는 주의자 회고라는 독특한 재현 전략을 취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삼천리』가 도달한 새로운 지점이란, 앞서 몇 번 인용된 바 있는 김동환의 발언, 즉 "정치운동의 '정'자도 쓰지 못하게 된" 새로운 상황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한만수는 1930년대 문인들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과거 회귀라는 방법을 택했다면서 이는 "현재적 문제에 대해 검열이 집중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한다.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된 과거 회귀가 이후에는 상고적 미학을 형성하거나 학문적 글쓰기 관례로서의 '탈정치성'이라는 관념을 강화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52]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한다면, 사회주의(자)를 역사화하고 회고담 형식으로 이(들)를 다루는 『삼천리』의 태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띤 포즈로 해석할 수 있다. 김동환이 잡지 편집인으로서의 고충을 본격적으로 털어 놓기 시작한 1930년대 초반 이후 조선 언론계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의자를 다루는 『삼천리』의 기사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더 회고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삼천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고 장르가 지니는 중요성은 비할 데 없이 컸을 것이다. 사회주의(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과거사'로 명명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더 이상 '현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안전한 의도의 소산으로 읽힐 것이기 때문이다.

회고의 첫 번째 유형은 사회주의 계열의 필자가 자신의 과거 투쟁 경력을 담담하게 술회하는 형식이다. 1922년 고무공장 여공의 파업에 동참했던 일을 회고하는 송봉우의 글을 비롯해, 신문기자, 농민, 직공 등이 과거에 일으켰던 노동쟁의를 소개하는 다섯 필자의 글을 실은 「노동쟁의

49) 김근수, 1973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4면(유석환, 앞의 논문, 256면에서 재인용).
50) 유석환에 의하면, 『삼천리』는 남궁벽, 나도향, 최서해 등 요절한 작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 이들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삼천리』는 문학을 역사화하는 데 발 벗고 나선 잡지였다. 유석환, 앞의 논문, 256~257면.
51) 柄谷行人(가라타니 고진)(송태욱 옮김), 2006 『트랜스크리틱-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원제 *Transcritique*), 한길사, 180면.
52) 한만수, 2007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40면.

실제기」(15호(1931. 5))가 대표적이다. 4권 1호(1932년 1월호)에는 김약수, 여운홍, 임원근 등의 「나의 해외 망명 시대」가 실려 있는데, 김약수의 글에서 북풍회 결성 관련 내용은 검열에 의해 삭제됐다. 그나마 불완전한 회고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투옥만큼이나 '일상화된', 해외 망명이라는 주의자의 삶의 양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상」(5권 10호(1933. 10))이라는 기사는 "이 땅의 푸로레타리아 문예운동이 가장 호화롭든 1930년 여름"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출판된 조명희의 <낙동강>을 "朝鮮文壇의 최고수준에 달하엿든" 작품으로 상찬하는 글이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회고의 두 번째 유형은, 제 3자(기자)가 자신과 동시대를 사는 주의자나 이들이 속한 조작단체를 역사 속 인물과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련의 기사들이다. 해산 위기를 맞이한 근우회 풍경을 스케치한 아래 기사는,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해외로 도피 망명한 여성 주의자들의 전성기를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지하에서일망정 포기되지 않았을 이들의 꿈을 지난 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듯해 해석과 평가가 쉽지 않다.

> (전략) 그도 그럴 것이 근우회의 전성시대는 역시 조선의 무산계급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3, 4년 전까지의 일로 그때에는 許貞琥, 黃信德, 姜아근니아, 丁七星, 禹鳳雲, 沈恩淑, 趙元淑, 金繡準 씨... 등 실로 일기 당천의 거장이 수두룩 하엿섯스나 **제일차 공산당 이래 날이 밝기 무섭게 작고 발각되고 검거되는 공황시대 암흑시대에 직면하면서부터 근우회의 여러 투장들은 혹은 그의 남성동지와 가치 혹은 그의 애인과 함께 포승을 밧고 끌니어가는 몸이 되엿다.** 許貞琥, 鄭鍾鳴, 姜貞熙 등은 공산당원으로 잡히어 지금 서대문형무소에 몸을 억매이어 잇고, 趙元淑, 朱世竹 등은 최대의 애인이자 동지인 량명, 한위건, 박헌영등을 따라 상해 혹은 「모스쿠바」로 혹은 해삼위 등지로 몸을 날려버렷다.
>
> (중략) **근우회 본부 부근에는 근대에 자본주의 문명이 더욱 선명한 색채를 가지고 출현하기 시작하야** 몃집 건너지 안은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 부근에는 조선의 금융왕 민규식계(閔奎植系)의 삼십만원의 대삘딩이 서고 잇는 중이요 또 그리로부터 본부로 향하는 길가에는 썩어가는 근대문명의 한 표현인 경박, 음탕한 카페가 위압하는드시 서고 잇고 바로 옆집인 대동인쇄회사(大東印刷會社)의 윤전긔 소리와 한남권번(漢南券番)의 장고소리는 더욱 커갈 뿐이다. 이 사이에 잇서 근우회는 다시 녯날의 황금시대에 한 번 도라오고 말는지 또는 해소의 조류에 영영 그 자최를 감추고 말는지 자못 근대인의 신경을 흔드는 문제이다.
>
> **아무튼 십년의 력사를 가젓든 서울 공평동의 근우회 본부는 엇지해서 이대지도 찻는 사람의 가슴 속에 적막의 해수를 던저주는가?**[53]

십년의 역사를 가졌던 근우회 본부를 기자가 다시 찾아보니 "맑스와 레닌을 렬렬히 토론하든

53) 「여성해방운동의 전위단체의 근황(1)」, 3권 11호(1931. 11), 100~101면.

인테리 녀성"들인 허정숙, 정종명, 조원숙, 주세죽 등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이거나 애인인 양명, 박헌영 등과 함께 해외로 도피해 근우회 본부는 "쓸쓸하기 짝이 업"다. 빌딩, 카페, 인쇄소, 권번으로 둘러싸인 근우회 본부가 "찻는 사람의 가슴 속에 적막의 해수를 던저"준다는 마지막 문장은, 근우회의 정치적 입장과 현실을 아주 오랜 과거의 일로 둔갑시켜 '근우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자는, 주의자들의 검거, 투옥, 망명, 도피라는 정치적 사건을 현안으로 다루는 대신, 검거와 망명으로 와해된 이들의 조직을 과거사로 호명하는 안전한 길을 택한 셈이다.[54] 묘사의 초점은 체포된 채 '살아 있는' 주의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투옥으로 '궤멸된' 조직에 있다.

그러나 화상이라는 안전한 재현의 틀 덕분에 주의자들은 종종 '거물' '거두' '영웅'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1925~1926년의 제 1,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1929년의 신간회 민중대회사건 관련자들의 근황을 전하고 있는 다음 기사는 제1차 공산당의 간부인 책임비서 김재봉, 중앙위원 김약수, 유진희, 주종건, 김찬, 조동호, 정운해의 7인과, 공산청년회의 홍증식,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 등을 하나하나 '巨頭'라 호명하고 출옥 후 이들의 삶을 짧게 스케치한다. 기자는, 아무리 세상을 격동시킨 크나큰 사건일지도 "역사라는 墓標 속에 고요히 숨어버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잘 잊히지 않는 "큰 사건으로 비교적 기억에 새로운 것이 1日 朝鮮共産黨事件이요, 2日 民衆大會事件"이라고 단언한다. 기자는 조선공산당 사건 관련자들에 관한 기억을 『삼천리』 독자들과 나누어 갖기(分有)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10년도 더 지난 공산당 사건에 대한 기억을 독자들과 다시 한 번 나누어 갖기 위해 쓰인 이러한 기사는, "사건의 기억을 이 세상으로 다시 한 번 소환하는 말하기"[55]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 **이제 붓가는 대로 이 두 사건의 관계인물들로서 지금은 어느 별밋헤 무슨 꿈을 꾸면서 하로 24시간이라는 長長 긴 세월을 보내고 잇는가 그를 밝혀보려 이 붓을 잡엇노라.**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는 제일차 공산당사건이라 하면 저 6·10만세 사건 등 派生的인 모든 사건의 광경이 떠오르리라. 그리고 간부급 인물이 新義州署로 잡혀가든 광경, 裁判所에서 審理밧든 때 광경, 新聞社號外와 중로 네거리 가고 오는 시민들이 수군거리든 광경. 그때는 아직 다른 데에도 공산당이란 조직체가 업는 때 돌연 **官憲의 손으로 101명이란 多數한 사상운동자가 13道에서 檢擧되든 그 무시무시한 소식을 바로 어적게 잇든 일 가치 기억이 선명하건만 해수로 따지면 벌서 10년 전의 날 일이 되엇다.**[56]

54) 주의자와 관련된 유일한 '현안'은 전향이다. 6권 7호에 실린 「余의 전향이유 – 조선공산당원 某의 수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운동은 과거사, 전향은 현안이다. 이밖에도 국내 사회주의 운동사를 약술한 김경재의 글 「최근조선의 변천 25년간 – (사상계) 화요, 북풍, 신간회 등의 명멸」(6권 7호(1934. 6))과 김경재의 「金燦時代의 火曜會」(7권 5호(1935. 6))도 사회주의 운동과 주의자들을 '과거'의 인물과 사건으로 규정하는 대표적 기사이다.

55) 오카 마리, 앞의 책, 172면.

56) 「出頭巨頭의 其後, 第一·二次 共産黨事件의 首腦者, 民衆運動者大會事件의 首腦者」, 6권 5호(1934. 5), 112면.

이를테면 기자는, 1928년 8월 아내 주세죽과 함께 극적으로 조선을 탈출해 11월 모스크바에 도착한 박헌영을 '사라진 거두'로 묘사한다. 그는 "하로 아츰 바람갓치 사라젓다. 들니는 風聞에 朱女史와 함께 모스꾸바에 갓다 하나 지금즘 어듸 잇는지 아모도 아는 이가 업다"는 것이다. 박헌영과 김단야들은 '과거'에 주의자 활동을 한 '풍문' 속의 잠적한 거물로 재현된다. 『삼천리』는 거듭된 투옥에도 불구하고 비합법 노선을 고수하는 박헌영, 김단야의 근황과, 출옥 후 잡지사를 경영하거나 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김약수, 임원근 등의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병치해 놓는다. 누군가는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뉴스'와 누군가는 잠적했다는 '풍문'이 한데 섞여, 조선의 바깥(감옥/해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을 일이 '과거'의 어느 한 때 일어났던 옛일로 위장된다. 소문과 회고를 통해서 비합법 운동가들은 출옥 후 전향하지 않고도 '사회주의자'임을(였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57] 그런 점에서 '회상'과 '소문'은 『삼천리』의 주의자 표상 체계의 두 뼈대라 할 수 있다. 『삼천리』가 잠적한 주의자들의 소문을 실어 나르고 이들의 근황을 시시콜콜 캐내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회고나 소문 속의 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거물'로 그려졌다. 이 점은 여운형을 그리는 『삼천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언급하는 3장에서 후술될 터이지만,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삼천리』가 '재옥 거두'나 '거물'로 주의자를 명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조선의 사상범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판검사진을 소개하는 다음 기사에서, 정작 위용을 갖춘 존재로 보이는 것은 일본인 판검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재판받았던 김대봉, 김약수, 박헌영 등의 '거물'들이다.

> **金大鳳, 金若水, 朴憲永 등 거물을 압헤 노코, 그 당시 젊은 이 검사는 취조에 상당히 고심하엿다는 말을 들엇다.** 그럴 것이 공산당이라 하면 그 당시는 東京에서도 업섯다. 日本 全國內에 잇서 최초의 대사건으로 그네의 배후 연락 관계가튼 것은 알어내기가 더구나 힘들엇슬 것이다. **그 뒤를 계속하여 제2, 제3차로 뒤를 물고 이러나는 諸共産黨사건은 대개 이 五井 재판장, 森浦 검사의 「콤비」로 되어 나갓다.**
>
> 森浦씨의 손에 걸닌 사건은 이 밧게도 또 光州學生事件의 뒤를 이어 이러낫든 許憲, 洪命憙, 李璿銘, 趙炳玉씨 등의 민중대회사건이 잇다. (중략) 이리하야 지금 朝鮮의 최고재판소인 고등법원의 사상사건은 五井 판사, 森浦 검사의 兩씨 손으로 처리되어가고 잇다.[58]

『삼천리』지상에 가장 자주 출현하는 여운형과 관련해서도 "상해 시절 낮에는 ××에 출동하고 저녁과 밤에는 반드시 양말장사"로 나서 생활비를 벌 만큼 고결한 인품을 지녔다는 '소문'을 『삼

57) 이혜령은, 체포, 투옥, 전향이라는 계기를 통해 비로소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라는 신원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고 논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체포와 구금은 이들에게 '부재의 존재방식'을 강요하는 계기였으며, 사회주의를 버리겠노라는 의사 표명, 즉 전향 또한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자라는 신원을 드러내는 표상 체계였다는 것이다. 이혜령, 앞의 논문 참조.

58) 金炳魯, 「半島의 思想判檢事陣, 高等·覆審·地方의 三法院을 通하야」, 7권 3호(1935. 3), 42~43면.

천리』는 소개하고 있다. "巨額의 돈을 제 손으로 움지길 기회 여러 번 잇섯스면서도 私用에는 一切 손을 안대이고 양말행상하여 산 氏엇다"[59]는 감탄도 이어진다.

옛 동지의 이름을 부르며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에도 소문의 전략은 동원됐다. 정칠성은 「동지생각」(7권 3호(1935. 4))에서 한창 시절 근우회 집행위원들의 쟁쟁한 면모를 떠올리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거나 유학을 떠난 옛 동지들의 근황을 안타까운 어조로 소개한다. 이 글에서 정칠성은 "黃信德이여 許貞琭이여 禹鳳雲이여 趙元淑이여 沈恩淑이여 姜이근나이여 鄭鍾鳴이여 朱世竹이여 李賢卿이여 玄桂玉이여"라며 근우회 옛 멤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역시 풍문 몇 가지를 독자와 나누어 갖고자 한다. 주세죽 등 몇몇은 "멀니 海參威에 잇다는 소문뿐"으로 "혹은 西藏 외몽고에서 지낸단 풍문을 바람결에 드를 뿐"이라는 것이다. 주세죽의 남편 박헌영과, 형기가 남은 鄭鍾鳴에 관한 소식도 실어놓는다. 소문과 회상의 서사로 환기되는 주의자 형상은 회고 주체가 토로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독자들에게 '사라진 거물'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

2) '돌아온 영웅', 가인(佳人)과 호걸(豪傑)들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 전쟁이 노골화한 일제 말기에도 『삼천리』는 반도의 名士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 내 각계 유명 인사들의 면면을 기록해 놓으려는 『삼천리』의 의욕은 여전했다. 이 시기가 되면 문인, 사상가, 재벌, 출판경영인, 영화배우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주요 인사들이 '호걸'이나 '재자가인'으로 통칭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930년대 초중반의 기사에서 거두나 투사로 불렸던 남녀 사회주의자들도 1930년대 후반에는 그저 이름답고 훌륭한 유명인(佳人, 豪傑)으로 새롭게 명명된다. 재현의 초점이 비합법 주의자에 대한 회상에서 합법 운동가의 활약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29년 영국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다가 상해에서 체포돼 조선으로 압송될 당시의 여운형은 "朝鮮○○運動의 巨頭"로 회고되지만, 1930년대 중후반 결혼식 주례를 보러 다니는 현실 속 여운형은 여느 배우나 재벌과 별반 다르지 않은 名士의 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주의자로 기억되는 여운형은 "몃 번이나 被捉說을 전하"면서도 "정말은 도모지 한번도 잡혀 본 적이 업"는 신비로운 영웅이다. 그가 상해에서 체포되어 조선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신문사들의 열띤 보도 경쟁을 회상하는 김을한의 글에는 일본인 기자들까지도 열차로 이동 중인 여운형의 영웅적 풍모에 감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 **京城驛에서 나리면 마중 나온 군중이 만을까봐 護送警官은 미리 龍山驛에서 나리기로 작정한 모양으로 열차가 龍山驛에 닷자마다 그들은 벌서 나릴 준비를 하기 시작하엿다.** 呂運亨은 默默泰山과

59) 「풍문집」, 6권 9호(1934. 9), 185~187면.

가치 무거웁게 안저 잇든 장대한 몸을 이르키며 한 손에는 그의 夫人이 上海日本領事舘으로 差入해 주엇다는 검정 측렁크를 선듯 들고 체포될 뗴 분실하엿다 하야 머리에는 여전히 모자도 안쓴 채 무거운 거름을 『푸랫트홈』으로 옴겨 노왓다.

한거름… 두거름… 여기서야 비로소 거운들편드시 각 신문사 寫眞班의 「마구네슌」 터프리는 소리가 일제히 요란케 나는데 **『呂運亨은 상상하는 바와가치 참 큰 사람이거든! 그저 엽헤만 가 잇서도 일종의 위압을 늑긴단 말이야!』 라고 엽헤 나란이 서서 呂의 뒤를 따러나오든 B라는 日本文新聞記者까지 이러케 중얼거리며… 함을 마지 안는다. 「사스가니 에라이」 라는 말은 그 날에 그들이 바든 공통된 인상이엿다.**[60]

'장대한 몸'이라는 구절이 환기하는 여운형의 영웅적 풍모랄까 위엄은 대단한 것이어서, 구름처럼 몰릴 군중들을 예상한 일경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만큼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거물'이었다. "도산이 드러오면 무슨 罪名을 쓰고 얼마나 刑期를 밧을가고 하는가. 무에 呂運亨보다 重할가고 하는가?"[61]라는 짧은 대화가 암시하는 것처럼 여운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합법 운동가의 표본이자 모범이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삼천리』의 독자들은 여운형이 '지하'에 머물러 주기를 바랐다. 독자들은 여운형이 일 년에 오십 번 이상 주례를 서러 다니기보다는 박헌영처럼 계속 비합법 활동가로 남아 풍문이나 회상 속에 존재하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여운형에게 가출옥 후 해외로 다시 나가 활동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한 독자는 "朝鮮안에 잇는 인물들은 대개 한 번식 민중 압헤서 시험을 치르고 난 분들"로 "이미 정가표가 부튼 분들"인데 "그 사람들 틈에 끼어 무슨 일을 한다면 現下의 객관적 諸조건 아래에서 瘡傷을 밧"고 "貴下 종래의 인격과 節을 직혀가기 심히 곤란"하다는 근거까지 들고 나온다. 이에 여운형은 "그 이유의 설명은 피하겟"으나 국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답변한다.[62]

이상의 기사들을 보건대 당시 『삼천리』 독자들은 비합법 노선과 절연한 운동가들이 합법 매체의 언론가나 대중 연설가·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면 그 진정성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 같다.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여운형이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하는 1933년을 기점으로 그에 대한 『삼천리』의 관점은 눈에 띄게 변화한다. 이제 여운형은 전설적 영웅이 아니라 지상(地上/紙上)의 스타가 된다. 무엇보다도 그는 탁월한 연설가, 웅변가였다. "말 잘하는 고수는 金秉濟, 呂運亨, 張德秀, 玉潤珍, 朱耀翰의 諸氏"[63]라는 평가와 더불어 그는 반도

60) 김을한, 「열차 중의 여운형」, 6호(1930. 5), 39면.
61) 「夏日夜話」, 4권 5호(1932. 5), 10면.
62) 「여운형에게 – 해외가서 재활동하서요, 외지에서 돈도 거더보내고요」, 4권 10호(1932. 10), 10~11면. 한편 『삼천리』는 4권 9호(1932. 9)부터 4권 10호(1932. 10)까지 여운형의 자서전을 싣고 있다.
63) 高手集, 5권 9호(1933. 9), 85면. 이밖에도 5권 4호(1933. 4)에는 <감격으로 한 余의 연설> 여운형 편이 실려 있다.

의 대표적 웅변가들로 분류됐다.[64] 스포츠맨으로도 유명했다.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경성평양대항 도시야구전에서 사구식을 가진 중앙일보사장 여운형을 보고 기자는 "上海때부터 운동가로 유명한 분이라 그 뽈 던지는 태도는 실로 관객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리만치 爽英하엿다"[65]고 서술한다.

여운형이 일본인 기자조차 탄복해 마지않았던 거물로 회고됐던 것은, 그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은 비합법 활동가였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 적어도 『삼천리』 기사만을 놓고 봤을 때, 대중은 비합법 노선에 관계하는 주의자가 차라리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운형의 '합법적' 공식 활동은 지나치리만큼 활발했다. 창랑객은 "政治客 呂運亨氏, 一男女情事에 너무 흥미 가지는구려. 是 認識越過, 超過도 걱정, 不足도 걱정"[66]이라는 날 선 어조의 기사까지 싣는다.

> 一言과 一題居士
> A. 자네 우리 사회의 『一言居士』를 아는가
> B. 一言居士라니?
> A. 어느 會席에든 不無出席하고 不無一言이지. 曰 李鍾麟氏, 徐廷禧氏, 李仁氏야.
> B. 그러하면 『一顔居士』란 말은 통용 못되나?
> A. 一顔이라니.
> B. **어느 모임에든지 반드시 얼골 한번씩은 내어 놋는 분이지. 曰 呂運亨氏야. 어느 운동회치고 어느 연설치고 어느 會席치고 呂氏 얼골이 빼지는 때가 별로 업는이 더구나 결혼식에 주례로 基至於 某女流詩人의 出版記念會에까지 오서서 祝辭하섯서.**
> A. 新聞社長으로 잇스면서 무척 활동하시는 분이야. 年齒 오십에 미치 것만늘 청년들 갓치 활발하게 유쾌하게 도라다니시는 것이 오직 조흔가.
> B. 물론 조치. **다만 초청박은 곳의 3割쯤만 가리어서 돌아 다니신다면 무게도 권위도 더 잇서지 련만.**[67]

운동회, 연설회, 결혼식에서부터 출판기념회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보게 되는 여운형을 두고 기자는 초청받은 곳의 3할만 가려서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쓴소리를 한다. "풍금소리 들

64) 鷲公, 「여운형씨 연설평-반도의 웅변가들」, 6권 8호(1934. 8); 주운성, 「웅변가의 연설」, 7권 3호(1935. 3); 「열변, 열변, 열변」, 8권 4호(1936. 4) 등의 기사는 빠짐없이 여운형을 거론한다. 1936년 1월에는 『삼천리』 신년별책부록으로 『여운형연설집』이 간행되기도 했다. 1935년 1월호 '社告'에 여운형 연설집이 2월에 나올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예정보다 1년 쯤 늦어진 듯하다.

65) 「삼천리 인생안내」, 5권 10호(1933. 5), 18~19면. 여운형은 7권 6호(1935. 7)에 「체육과 극기」란 글을 싣기도 한다. 「신문사장의 하로-여운형씨, 중앙일보사장」(6권 5호(1934. 5))에는 여운형의 하루 일과가 스케치되어 있다.

66) 「삼천리춘추」, 6권 5호(1934. 5), 39면.

67) 「삼천리꼬-스톱」, 6권 5호(1934. 5), 148면.

니는 곳곳에 여운형(呂運亨)씨의 시언한 얼골이 보이지 안는 때가 업다"면서 결혼식 주례 많이 하기로 유명한 여운형이 과연 일 년에 몇 쌍이나 맺어주는지를 셈해 놓은 기사가 실릴 지경이었다.[68] 배가 전복돼 선객과 뱃사공이 모두들 빠져 죽는 와중에도 "아주-장승가치 서서"[69] 살아남았다는 여운형은, 이제 소문과 회고 속에서만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됐을지도 모를" 영웅일 수 있었다. 복혜숙과 복면객의 대담 기사 「장안 신사숙녀 스타일 만평」은, 동아일보 축들, 조선일보 축들, 중앙일보 축들, 매일신보 축들, 화신 패들, 동양극장 패와 배우, 남녀가수들, 은행회사중역들로 범주화된 장안의 '신사' '숙녀' 소식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여운형은 대표적 호남자로 손꼽힌다.[70]

여운형의 중도적 성향이랄까 대중 정치가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삼천리』의 관심은 컸지만, 그의 행적을 좇는 기자들의 시선은 결코 여운형에게 호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호의적으로 거론될 때도 여운형은 그저 '인품 좋고 체력 강한, 가끔씩 카페에서 초콜릿을 먹는 호남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사상가'로 여겨지지 않았고 더더구나 혁명가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확실했다.[71] 비합법 운동가에서 대중 연설가로 자리바꿈하자 그를 회상하는 방법까지 달라진다. 상해 시절의 여운형을 두고 유광렬은 "살이 둥둥찌고 滿身 熱血이 솟는 軒軒丈夫"로 "점심을 함께 먹는데 水滸誌에 나오는 豪傑처럼 소갈비떼를 그양쥐고 훌터자시는 품이라든지 말소리 우럭우럭하고 모자도 안쓰고 다리를 훨신 거더 저친 바지 짜른 洋服을 입고 굵은 몽동이 집고 훨-훨-활개치며 다니는 모양이 「當代 豪俠男兒 그대로구나」 하는 늣김"[72]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거물이라는 메시지는 같지만 한결 통속적으로 채색됐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삼천리』와 그 독자들은 여운형이 박헌영이나 주세죽처럼 '소문'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를 원했을지 모른다. 출옥하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달라는 독자의 요청은 괜한 바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체포된 채 열차에 앉아 있던 여운형을 회고하는 기사와 일 년에 오십 번 넘게 주례를 서는 여운형에게 고소를 금치 못하는 기사는, 『삼천리』를 둘러싼 조선 정세 변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박헌영이나 주세죽으로 대표되는 비합법 운동가 관련 소식은 소문의 형태로도 회고담으로도 실리지 않게 된다. '과거사'라는 포장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주의자가 언급될 수 있다면

68) "昨年에 53쌍 今年 57쌍 (11월24일 현재)이라 실로 한달잡고 두 번은 의례히 결혼식 주례를 하신다. 금년만 해도 동짓달 스무나흗날까지 오십칠쌍이오 섣달드러서 십여곳의 豫約을 밧고잇다니 아마 올에는 70쌍도 더 넘을 것 갓다. **이 모양대로 늘어가서는 명년은 아마 100쌍을 넘을 듯.**" 「드른 風月記」, 8권 1호(1936. 1),

69) 「운명과 사생관 좌담회」, 6권 9호(1934. 9), 132면. 이밖에도 여운형 부처를 탐방한 기사도 있다. 부인기자 강순옥, 「夫婦座談會-二十年만에 新婚 氣分나신다는 呂運亨氏 夫妻」, 7권 11호(1935. 12).

70) 9권 1호(1937. 1)

71) 「현대 장안호걸 찾는 좌담회」, 7권 10호(1935. 11), 83~84면.

72) 「천하대소 인물평론회」, 8권 1호(1936. 1), 34면.

그것은 '가인'이나 '호걸' 같은, 전혀 정치적 뉘앙스를 띄지 않은 공인 혹은 스타로 분류될 경우에 한했다. 합법 노선을 걷는 한, 주의자와 아닌 자, 사상객과 자본가를 굳이 가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名士'라는 앙상한 공통점이 있었다.[73]

백악선인이 쓴 「현대 장안호걸 찾는 좌담회」는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선 시기의 앙케트/좌담/대담 기사가 초기 『삼천리』의 앙케트/좌담/대담 기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민족주의자인가'와 같은 질문이 사라진 자리를, '서울 대표적 好男子, 美男子는 누구누구일가?' '서울서 한다하는 美人들은 누구누구일가?' '돈 잘 쓰고 俠氣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일가?'와 같은 질문들이 대체하고 있다. 미인박명이라는 테마를 놓고 떠들던 이서구, 복혜숙, 백악선인[김동환]이 사회주의 여성 가운데는 누가 예뻤는가를 논하는 대목을 보면 여성 주의자 표상이 급격히 변화했음을 실감하게 된다. 양명의 애인 조원숙은 육감적이기는 하나 노-불한 맛은 없다는 둥, 강이근나이는 팔다리가 투명하리만큼 살결이 고왔다는 둥, 전체적으로 예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미인인 사람들이 근우회 멤버들 중에 많았다는 둥의 잡담이 이 좌담에서 어지럽게 오고간다.[74][75] 심지어 복혜숙은 1920년대 중반의 전위적 여성 단체 근우회 멤버들을 영화배우 신일선의 선배 격 인물들로 평가하기도 한다. 신일선이 '조선의 애인'이라는 복혜숙의 언급대로라면 근우회 멤버들 또한 '조선의 애인'인 셈이다.

> 卜惠淑 – 그제부터야 등장하는 여성이 많고 이 구통이 저 구통이에서 로-맨스와 소문이 마구 쏘다져 나왔지. **그때 한 시대를 이룬 이들이 權友會一派일걸요. 丁七星 鄭鍾鳴 黃信德 許貞淑, 沈恩淑 姜石子 姜아근니아 모도 다 錚錚한 패들이었지요.**
>
> 李瑞求 – 그럴걸요. 여성운동자들의 전성시대이자 시대조류도 이분들을 위해서 모든 무대와 기회를 드렸지요. **이러케 權友일파의 군웅할거적 물결이 한바탕 휘-지나가자 그 다음에 등장한 이가 「申一仙」이였지요. 申一仙이 같이 「조선의 애인」노릇을 한 이가 근대사 중에는 없을 걸요.**[76]

그나마도 주세죽의 이름은 빠뜨린 채 근우회 멤버들을 회상하고 있는 위의 두 기사는, 주의자

73) 김약수, 송봉우, 임원근 등 '왕년의' 주의자들을 평한 김옥련, 「여성이 본 명사제씨의 초인상」(5권 3호(1933. 3))과 같은 기사가 이를 잘 말해준다.

74) 백악선인, 「현대 장안호걸 찾는 좌담회」, 7권 10호(1935. 11), 88면.

75) 이렇게 실컷 얘기하다가도 여성 비평은 민감하니까 안 하겠다고 일제히 자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8권 1호(1936. 1)에 실린 「天下大小人物評論會」의 일부분이다. "金東煥– 앗불사. 이약이 하다가보니 女流名士들을 노쳣구만. 어듸 朴仁德이부터 첫 印象을 말해주게나./ 宋奉琦– **結局 美人타령부터 하여야 할 터이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엇든가**/ 李瑞求– **그러치 女子批評하기 좀 까다로운가 一切그만두지. 뒤에 말성잇기도 쉬운즉**/ 金東煥– 다덜 弱卒이군. 遠而敬之하는양이."(38)라든가 "李瑞求– **女性批評은 거북하니 그만두세.**"(44)

76) 「長安 『才子佳人』, 榮華와 興亡記」, 11권 1호(1939. 1), 112면.

들의 붉은 연애담을 들려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여성 공산당원을 소개한 초창기 기사와 확연히 달라진 관점으로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스케치하고 있다. 물론 활발하고 술 좋아하는 여장부 타입으로 기억되는 정종명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 역시 '어머니' '누이' 심지어는 '식모'로 호명됨으로써[77] '가인'으로 불린 다른 근우회 멤버들에 비해 더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신간회에서 활약하는 정종명의 모습을 스케치한 「新幹會全體大會, 代行中央執行委員會 光景」(11호(1931. 1))이라는 기사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 일장기 말소 사건의 여파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된 것이 1936년임을 감안한다면, 「강남풍월」이라는 가벼운 이름의 코너에 여운형을 '사회주의자'로 단언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렸음은 자못 놀랍다.

> 呂氏 兄弟 友愛
>
> 友愛 좋기로는 呂運亨 呂運弘 兄弟 같은 사이가 드물다. 점심마다 兄은 新聞社로 동생은 미신會社로 일부러 鍾路 네거리 百合園에 모아 한 食卓에서 점심을 같이한다.
>
> 그런데 요지간 서울에 풍설 한 가지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朝鮮基督敎社會가 亂麻같어가니 그를 바로잡기 위하야 中央靑年聯合會總務로 呂運亨氏를 迎入한다는 說이 그것이다.
>
> 이 소리를 들은 동생 運弘氏 **「미친 말듣, 社會主義者로 唯物史觀을 信奉하여 數十年에나 하는 내 兄이 基督敎 일을 보아? 빨간 中傷이지.」**[78]

여운형, 여운홍 형제의 돈독한 우애를 미화하는 이 기사에서, 기자는 자신의 형이 "사회주의자로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정객이라 목소리 높이는 동생 여운홍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후에도 여운형에 대한 『삼천리』의 관심은 지속됐다. 「呂運亨씨는 무엇하고 게시나 前新聞社長의 그 뒤 소식(其1)」(10권 1호(1938. 1))를 비롯, 「嗚呼, 中央日報 逐廢刊, 二十餘年의 言論活躍史를 남기고」(같은 권호), (1938. 8) (1938. 10) (1939. 6) (1940. 5) (1940. 10)의 기밀실에서 이름을 자주 남긴다. 「長安 社會客인 夫君들의 生活을 報告하는 書(四氏近況)」(12권 6호(1940. 6))에는 여운형 근황을 알리는 부인의 목소리도 실렸다.

77) "우리가 일즉 저 齋洞에서 所謂 社會運動 – 會館生活을 할 때에 우리는 그의 밥도 만히 빼서 먹엇스며 그의 衣服도 만히 잡혀 먹엇슴니다. 그의 職業이 産婆인 때문에 몃 칠에 한 번식 몃 원이 생기면 우리 會館에 石炭을 사오고 電燈을 켯슴니다. 그때 우리는 이 鄭氏를 누이라 하고 食母라 하고 愛人이라 하고 혹은 엇든 意味에서 어머니라고 한일도 잇슴니다. (以下 17行削除)" 14호(1931. 4), 30면.

78) 「강남풍월」, 8권 12호(1936. 12), 39면.

4. 나가며

주의자들에 대한 『삼천리』 독자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독자들은 특히 여성 주의자들이 언제 출옥하는지, 출옥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이는 어떻게 낳고 기르는지 줄기차게 질문하고 『삼천리』는 이에 성실히 답한다. 초기에 신설된 '교차점'이라는 코너가 큰 역할을 했다. 『삼천리』는 17호부터 독자와 기자(혹은 명사)가 문답할 수 있는 '교차점'이라는 코너를 마련했다며 아래와 같은 기사를 내보낸다.

> 이달부터 「交叉點」를 新設하엿슴니다. 社會의 여러 公人에게 뭇고 십흔 말을 仲介하여 드리는 곳임니다. 무슨 말슴이든지 本社에 經由하여 무러주시면 本社에서는 當該氏에게 그 便紙를 傳하야 그 回答을 本紙上에 發表하여 드림니다. 用紙는 葉書, 一人에 一問式. (投稿歡迎)[79]

이 '교차점'을 통해 독자들은 주의자를 비롯한 여러 공인의 근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허정숙과 정종명 등 근우회 멤버들에 대한 독자의 질문이 많았다. 허정숙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입옥하였는가 묻는 독자도 있고(1931 .7), "미안함니다만는 槿友會 鄭鍾鳴과 許貞淑 사건은 엇지 되엇"는지 "도모지 알 수가 업스니 답답"하다는 독자도 있었다(1932. 5). 이에 허정숙이 출옥했다는 소식과 정종명이 곧 출옥하리라는 소식이 나란히 전해지기도 했다. 독자가 묻지 않아도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직접 탐색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 鄭鍾鳴
>
> 한때는 女子苦學生相助會로 그리고 또 槿友會로 縱橫無盡하던 여류투사 그는 어듸로 자최를 감추고 마랏는가? **어지간히 얼근 얼골 뽀족한 입, 그 입으로 쏘다저 나오는 총알갓흔 파붓는 말구절 한동안에는 무엇무엇하는 운동자들의 어느 會合에서나 그의 얼골을 아니볼 수 업섯고 그의 음성을 아니들을 수 업섯다.** 鄭鍾鳴! 그의 일홈은 실로 多角形으로 朝鮮社會에 알니워젓다. 社會運動者로 産婆로 朝鮮의 고론 타이 거긔까지에, 그에게는 일즉이 한사람의 귀엽은 아들이 잇섯다. 그러나 그는 임의 成人한 청년이 되엿다. 그리하야 그도 그의 어머니의 피를 바다 鐵窓의 가침을 일우엇스며 그가 미처 出獄하기 전에 어머니되는 鄭女史는 지난번 『共作委員會』사건엔가 관련되야 **지금 豫審중으로 西大門 拘置盛에서 呻吟 중에 잇다.**[80]

정종명의 근황에 대한 기사는 4권 10호(1932. 10)의 「佳人春秋」와 이후 '기밀실'을 통해서도 간헐적으로 실린다.[81] 정종명의 출옥 후에도 독자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고[82] 1936년에 이르러서

79) 「교차점」, 17호(1931. 7), 70면.
80) 백운거사, 「행방탐색」, 4권 7호(1932. 7), 14~15면.

도 근황이 전해진다.[83] 허정숙 관련 기사도 줄곧 실렸다. 부인기자가 허정숙의 태양광선연구소를 소개하거나(1932. 9) 허헌, 허정숙 부녀가 함께 감옥에 가 있다는 소식을 연달아 싣기도 했다(1932. 2, 1932. 8~1932. 9). 4권 9호(1932. 9)의 「가인춘추」에는 출옥 후 태양광선연구소를 차린 허정숙의 근황이 소개되고 같은 호에 또 허정숙의 행적을 좇는 기사 「許貞淑女史의 太陽光線治療院, 일대의 녀류운동가 허씨가 自然科學殿堂으로 進出!」이 실려 독자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심지어 여운형의 나이를 묻는 독자도 있었다.[84]

『삼천리』는 실로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유명인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반영하면서 틈틈이 저항 세력,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과거와 미래를 "부자유스런 붓끝"으로나마 꾸준히 그리고자 했다. 연애하고 배반하며 때론 다스려지지 않는 성욕으로 번민하는 성애화된 주의자들과, 각종 회고 기사와 소문 속에서 영웅으로 기억되는 주의자의 형상은, 지하에서나마 '혁명의 투혼'을 불사르던 1930년대의 주의자들에게 과연 『삼천리』는 '동반자'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새삼스런 질문을 던진다. 본고의 서두에서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종합지 『삼천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통념 중 하나는 『삼천리』와 김동환은 '친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운동의 '정'자도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 하에서도 다양한 서사 전략과 재현의 틀을 마련해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오가며, 그리고 때로는 그 경계를 교란하며, 식민지 치하 사회주의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꾸준히 지면에 담았던 『삼천리』의 성실함은 분명 이채로운 데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취담」이라는, 사소한 잡담처럼 보이는 아래 기사가 얼마나 불온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또한 놀라게 된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을 스스로 되뇌는 이 가상의 인물은 국권을 회복한 조선 땅에서 인재가 활약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술김'에 내뱉고 만다.

> A. 우리 심심하니 醉談한마듸 할가.
> B. 무슨醉談인가.
> A. 부총독 두자면 朴泳孝侯로 재무국장 두자면 韓相龍氏 란 격으로 **朝鮮의 사람들로 해외에 大公使를 보내자면 엇든 분이 적임일가.**
> B. 내부터 한 마듸 하지 駐佛公使 李晶燮氏.
> A. 응 그럴 듯 하이 그럼 駐米公使엔 申興雨氏인가.
> B. 申興雨나 徐載弼氏겟지 그럼 駐露公使에는 李東輝인 가 朴O永인가.
> A. 女公使를 派遣한다면 南萬春의 누이가 안될가 .

81) "鄭鍾鳴은 몃해 징역이나 밧을는지 龍山工作會 사건으로 요지음 재판 밧느라고 용수쓰고 貞洞 출입하기에 분주하다." 「삼천리 기밀실」, 6권 7호(1934. 6), 16면.
82) 「삼천리 기밀실」, 7권 9호(1935. 10), 21면.
83) 「궁금한 사람 그 뒤」, 8권 11호(1936. 11), 182면.
84) "上海에서 逮捕되어 와서 지금 服役中인 呂運亨의 年齡을 아르켜 주세요. 平壤 大街主人/ 兄의 나은 금년 마흔서섯이외다. 舍弟 呂運弘拜." 「교차점」, 3권 9호(1931. 9), 51면.

B. 女公使는 傑作일세 그럼 駐中公使는 呂運亨氏일가.
A. 駐中公使가 음이야 만치 金奎植, 申錫雨, 呂運亨氏 등등 .
B. 駐英公使는?
A. **이러타는 醉談이 진담이 될나네 그만두세 그만두세.**[85]

마지막으로, 이 글이 미처 다루지 못한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반문화 운동의 한계를 지적한 조지프 히스와 앤드류 포터는 체제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역설하면서, 이를테면 자본주의 체제는 히피들을 기존 질서의 위협이라기보다는 마케팅 기회로 낚아챘다고 주장한다.[86] '어제의 대안이 내일의 주류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히피의 한계인가 체제의 위력인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삼천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천리』는 합법 매체로 일제 말기까지 장수한다. 최대한 비판적 관점을 취한다면, 어쩌면 『삼천리』에서는 주의자마저도 '잘 팔리는 아이템'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주의자의 한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잡지의 위력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대 여러 잡지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주제어 : 『삼천리』, 사회주의자, 재현의 정치학, 합법/비합법 운동, 연애, 회고, 소문

투고일(2009. 11. 2), 심사시작일(2009. 11. 13), 심사완료일(2009. 11. 26)

85) 「醉談」, 6권 5호(1934. 5), 36면.
86) 조지프 히스·앤드류 포터(윤미경 옮김), 2009 『혁명을 팝니다』, 마티, 48면.

<Abstract>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amcheolee*

Youkyung Son *

This paper aims to elaborate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amcheolee* in terms of its way of describing socialists. As a legal media, *Samcheolee* played a vital role in depicting many 'illegal' socialists with its various 'legal' strategies of representing them. Firstly, socialists are described as a common person who is seducing, loving, or betraying his/her partner in *Samcheolee*. Secondly, many socialists, who were placed under arrest, were eroticized as well as romanticized by *Samcheolee*. Thirdly, the most effective way of representing socialists without any possible regulation was to regard them as heroes/heroins in rumors or in retrospective narratives.

Key Words : *Samcheolee*, socialists, politics of representation, legal/illegal activities, love, retrospect, rumor

* Lecturer in Ajou University